나래국어

KG패스원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5 지방직 국어 해설

전) 비타에듀 언어영역
전) 이투스 청솔학원 언어영역
전) 메가스터디 언어영역
현) KG패스원 국어

저서) 2013 EBS 검토
2012 자이스토리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 시리즈
디딤돌 EBS의 모든 것 시리즈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비문학
네오씽크 완소국 국어능력인증
네오씽크 구슬땀 국어능력인증

문 1. 나머지 셋과 의미가 다른 사자성어는?

① 갑남을녀(甲男乙女) ② 초동급부(樵童汲婦)
③ 장삼이사(張三李四) ④ 부창부수(夫唱婦隨)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한자성어
주제별로 한자성어를 학습하면 이질적인 성어를 변별하는 문제(2015 서울시 9급에서도 출제)나 특정 주제를 가진 성어를 찾는 유형 해결에 유리합니다.
★ 나래국어 동형 모고에서 유형, 선지 완벽 적중!
☆ 정답 해설:
④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
☆ 오답 해설 :
① 갑남을녀(甲男乙女):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② 초동급부(樵童汲婦): 땔나무를 하는 아이와 물을 긷는 아낙네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
③ 장삼이사(張三李四):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문 2.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회의 주체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개개인의 의견을 굽혀 야합하지 않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자.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② 화이부동(和而不同)
③ 동성이속(同性異俗)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독해 + 한자성어
이 문항은 지문을 독해하여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독해 실력이 성어 지식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조건을 다 찾지 않고 선지를 읽으면, 비슷한 의미의 성어들이 나오는 경우 망설이게 됩니다.
☆ 정답 해설:
지문에 제시된 조건은 '다양성'과 '조화'이다. 따라서 '화이부동'이 지문의 내용에 제일 적합하다.
②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
☆ 오답 해설 :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여 울린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인다는 말
③ 동성이속(同性異俗): 사람이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라면서 그 나라의 풍속으로 인해 서로 달라짐.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3.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리포트 자료를 종류별로 (㉠)해 두어라
○ 재활용할 쓰레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 그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할 줄 안다.

	㉠	㉡	㉢
①	分類	分離	區分
②	分類	區分	分離
③	分離	區分	分類
④	分離	分類	區分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한자 – 혼동어휘
유의 관계에 있는 한자어들은 의미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두고 한자까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나래국어 동형 모고에서 유형 완벽 적중!
☆ 정답 해설:
㉠ 分類(나눌 분, 무리 류): 종류에 따라서 가름. '나눔'으로 순화.
예 교통사고의 유형별 분류
㉡ 分離(나눌 분, 떠날 리):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예 금줄은 성스러운 장소의 표시이며 속된 공간과의 분리를 나타낸다.
㉢ 區分(구분할 구, 나눌 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예 서정시와 서사시의 구분은 상대적일 뿐이다.

문 4.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숫저울까?
– 숫접다: 순박하고 진실하다.
② 그녀는 그가 떠날까 저어하였다.
– 저어하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③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 곰살궂다: 일이나 행동이 적당하다.
④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새살거렸다.
– 새살거리다: 샐샐 웃으면서 재미있게 자꾸 지껄이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어휘 – 고유어
어휘는 방대한 양 때문에 수험생들이 부담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시험이 임박하기 전에 기본서에 있는 어휘들을 꾸준히 익히고, 시험 근처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중요하게 다룬 고유어를 한번 더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고유어들이 기본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휘였습니다. 다만 문맥에 적절한지, 해설은 적절한지 두 가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주어진 예문만 보고 ③을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 나래국어 어/속/성한에서 선지 ②, ③ 적중!
☆ 정답 해설:

문맥에 어휘의 사용은 적합하나 뜻풀이가 잘못되었다.
곰살궂다 (형용사)
1.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예 곰살궂게 굴다.
2. 꼼꼼하고 자세하다.
예 사내대장부가 집안일에 너무 곰살궂어도 못쓰는 법이다.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허리서부터 팔다리를 주물렀다.

문 5. 다음과 같은 뜻의 속담은?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말한다.

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② 언 발에 오줌 누기
③ 여름 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 ④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속담
속담 역시 고유어나 성어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임박하기 전에 꾸준히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점차 독해 지문과 함께 제시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속담을 고르는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나래국어 동형 모고에서 선지 적중! ('동족방뇨'로 출제)
☆ 정답 해설:
② 언 발에 오줌 누기: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오답 해설 :
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
(=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
③ 여름 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을 그만두기는 어렵다는 말
(=오뉴월 겻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
④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힘이나 밑천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6.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 나는 그 일을 <u>시답지</u> 않게 생각한다.
② 그에게는 <u>다섯 살배기</u> 딸이 있다.
③ 밖에 있던 그가 <u>금세</u> 뛰어왔다.
④ 건물이 <u>부숴진</u> 지 오래되었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한글맞춤법 – 표기
★ 나래국어 동형 모의고사와 <국립국어원 털기> 특강에서 선지 적중!
☆ 정답 해설:
'부서지다'의 의미로 '부숴지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부서지다'만 표준어로 삼는다.
☆ 오답 해설 :
① 시답다: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
시답잖다(시답지 않다): 볼품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② 다섯 살배기
-배기: 1. (어린아이의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3.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③ 금세: '금시에'의 줄임말, '지금 바로'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문 7.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① 나는 3·1 운동(1919) 당시 중학생이었다.
② 그녀의 나이(年歲)가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다.
③ 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④ 국가의 성립요소 { 국토 / 국민 / 주권 }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문장부호
2014년 문장부호 개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7급에도 출제되었는데 이번과 마찬가지로 개정사항이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 나래국어 동형 모고에서 유형, 출제요소 완벽 적중!
☆ 정답 해설:
②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 ])'를 쓴다. 예를 들어,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등이 있다.
☆ 오답 해설 :
①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쉼표를 쓴다.
예 3.1 운동 예 8.15 광복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예 3·1 운동 예 8·15 광복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③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대괄호([ ])'를 쓴다.
예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윤석중 전집(1988), 70쪽 참조]
예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④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는 '중괄호({ })'를 쓴다.
예 주격 조사 { 이 / 가 }

문 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몽타주는 두 개 이상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에이젠슈타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그는 두 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하여 시각적으로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 했다. 가령 사람의 '눈'과 '물'의 이미지를 충돌시켜 '슬픔'의 의미를 드러내며, '문' 그림 옆에 '귀' 그림을 놓아 '도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이다. 의미에 있어서 단일하고, 내용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묘사적인 장면을 연결시켜 지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가 구현하려 했던 몽타주의 개념이다.

① 몽타주는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다.
② 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하여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한다.
③ '눈'과 '물'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배치되어 '슬픔'이 표현된다.
④ '문'과 '귀'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도청'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독해 – 내용확인
지문의 정보와 선지의 정보를 대응하여 확인해야 하는 내용확인의 부정 발문입니다. 이 유형은 글을 두 번 읽지 않고 정확히 빠르게 푸는 것이 관건이지요.

선지들을 미리 보면 글의 중심 화제가 '몽타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공통 키워드인 '몽타주' 외의 변별적 키워드(그 문장이 지문에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조건 단어)를 잡고 지문에 들어가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문의 정보와 선지①이 같은 정보라고 생각했다면 문장 독해력에 문제가 있으니 어휘 위주로 빠르게 읽고 자의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 나래국어 독해 알고리즘에서 지문 적중! (상형문자의 원리와 영화)

☆ 정답 해설:

에이젠슈타인이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의 원리를 빌려온 것이지, 이 원리를 바탕으로 '몽타주'가 탄생한 것은 아니다.

문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노동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상품의 일부라는 점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일반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재화 그 자체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수요·공급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상품은 공급자 자신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되고, 수요·공급에 있어서 봉급, 부가 급여, 직업의 사회적 명예, 근무 환경, 직장의 평판 등 가격 이외의 비경제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 시장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공급이 유연성 있게 변화하지 않는 동시에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가격의 조절 기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① 여러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② 여러 사례를 근거로 삼아 노동 시장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③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 시장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④ 노동 시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여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독해 - 전개방식

지문의 전개방식을 파악할 때에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제를 파악한 뒤에 지문에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전개방식을 선지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선지는 정확하게 끊어 읽도록 합니다.

★ 나래국어 동형 모의고사에서 지문 적중! (노동 시장의 유연성)

☆ 정답 해설:

지문의 화제는 '노동 시장이 생산물 시장과 다른 점'이다. '노동 시장'은 인간이 상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과 다른 특징이 있다.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장은 혼자서 빙긋 웃었다.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수걱수걱 들어주고 나면 길 잘못 들인 강아지 새끼처럼 또 무엇을 달라고 보챌지 몰라 불안할수록,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다.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인부들과는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 현재 노임도 올렸고 시간 노동제도 실시하고 있는 척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내일의 행사를 위해 숨 좀 돌려보자는 게 그의 속셈이었다.

그 다음엔 주동자들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인 후, 여비나 두둑이 주어 구슬리며 딴 지방으로 쫓아 보낼 작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쟁의에 참가했던 인부들의 명단이 저절로 들어와 있는 셈이었다. 그들 불평분자의 절반쯤은 3공사장 인부들과 교대시키고, 나머지는 남겨 두되 각 함바에 뿔뿔이 흩어지게 배당할 거였다. 점차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둘씩 해고해 나갈 것이었다. 차츰차츰 작업량을 늘리고 작업장을 줄여 가면 남는 인부가 많게 될 테니 열흘도 못 가서 감원할 구실이 생길 거였다. 따라서 인상되었던 노임을 차츰 낮추며 도급을 계속시키면서 인부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과같이 나가면 어항에 물 갈아 넣는 것처럼 인부들은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이었다. 소장은 이 모든 일들을 열흘 안으로 해치우고 원상 복구를 해 놓을 자신이 있었다.

– 황석영, 「객지」 중에서 –

① 소장은 내일의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려고 한다.
② 소장은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③ 소장은 쟁의의 주동자들을 해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
④ 소장은 감독조를 해체하여 상황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발문이나 선지에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였을 때에는, 지문에서 그 인물 위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속에서 그 인물의 속마음이 드러난 부분에 밑줄을 긋고 선지를 읽으면 답안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 정답 해설:

소장은 감독조를 해체하지 않고 당분간 3공사장으로 보내두어 시간을 벌고 있다.

문 11.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① 그는 허구헌 날 술만 마신다.
② 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벌여야겠구나.
③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④ 담당자의 서투른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한글맞춤법 - 용언의 활용

★ 나래국어 <국립국어원 털기> 특강에서 선지 적중!

☆ 정답 해설:

허구하다: ('허구한' 꼴로 쓰여)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 오답 해설 :

② '벌이다'와 '벌리다'의 구별.

* 벌이다 :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예 잔치를 벌이다/사업을 벌이다/고향에서 청년 운동을 벌이다
  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
  예 장기판을 벌이다/투전판을 벌이다.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예 책상 위에 책을 어지럽게 벌여 두고 공부를 한다.
  가게를 차리다.
  예 읍내에 음식점을 벌이다/전을 벌이다.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
  예 친구와 논쟁을 벌이다/전투를 벌이다/입씨름을 벌이다
* 벌리다 :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예 줄 간격을 벌리다/다리를 벌리다/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다
  껍질 따위를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예 생선의 배를 갈라 벌리다/밤송이를 벌리고 알밤을 꺼냈다.
  우므러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
  예 자루를 벌리다/아이는 두 손을 벌려 과자를 조심스레 받았다.

③ '서슴하다'는 비표준어이므로, '서슴하지'를 줄여, '서슴치'로 쓰는 것은 바르지 않다. '서슴다'가 표준어이므로, '서슴다'의 어간 '서슴-'에 어미 '-지'를 붙이면, '서슴지'가 바른 표기이다.
④ 복수 표준어 '서투르다/서툴다'의 어간에 어미 '-ㄴ'과 '-니'가 붙으면, '서투르다'는 '서투른/서투르니'로, '서툴다'는 '서툰/서투니'로 활용한다.

문 12.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②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함께 살기 어렵다.
③ 새해에는 으레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④ 몸이 아픈 사람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이론문법 - 형태론 - 품사
이론문법 영역에서 품사는 가장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품사는 단어가 형성되어 사전에 등재될 때를 기준으로 하고,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전성어미로 활용한 용언의 형태를 관형사나 부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문제는 모두 용언의 활용형이었으나 동사의 활용형인지, 형용사의 활용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형형으로 활용할 때 동사는 '-는', 형용사는 '-ㄴ'을 전성어미로 쓴다는 것을 이용하면 쉬웠을 것입니다.
★ 나래국어 동형 모의고사에서 출제 요소와 선지② 적중!
☆ 정답 해설:
'굳는'은 동사 '굳다'의 관형형이다.
☆ 오답 해설 :
나머지 선지는 모두 형용사의 관형형이다.

문 13. 다음 중 고친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그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② 그는 천재로 불려졌다.
→ 그는 천재로 불렸다.
③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그는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④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올바른 표현 - 문장 다듬기
★ 나래국어 동형 모의고사에서 출제 요소 적중!
☆ 정답 해설:
고친 문장도 중의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어순을 바꾸거나 쉼표를 활용하여 중의성을 해소해야 한다.
→ 그는 할머니의 마음씨가 좋은 손자이다.
→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오답 해설 :
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창작 활동'은 '열었다'를 서술어로 가질 수 없다.
② 이중 피동: 파생적 피동사인 '불리다'에 '-어지다'로 통사적 피동을 하였다.
④ 무정명사에 와야 할 조사(에): '나무'는 무정명사이므로 조사 '에'를 쓴다.

문 14. 밑줄 친 부분을 고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사업자는 절전형 기기 보급 제도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① 사업자는 → 사업자의
② 에너지를 → 에너지의
③ 줄임으로써 → 줄임으로서
④ 발전과 → 발전보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올바른 표현 - 조사의 쓰임
★ 나래국어 동형 모의고사에서 출제 유형 적중! <고쳐쓰기 유형>
☆ 정답 해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수식해야 하므로 '에너지를'이 아니라 '에너지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사업자'는 '동의한다'의 주어이므로 주격조사를 대체하는 보조사 '는'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③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조사는 '-(으)로써'이다. '-(으)로서'는 지위나 자격을 의미한다.
④ 접속 조사로 '과'가 적절한 문맥이다. '보다'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문 15. 다음 중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① (초청장 문안에서) 귀하를 이번 행사에 꼭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 통화에서)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③ (직원이 고객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현재 품절이십니다.
④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나라가 이번에 우승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택입니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높임법과 우리말 예절
★ 나래국어 동형 모의고사에서 선지 ②③④ 적중!
☆ 정답 해설:
직장에서는 상대방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존대하도록 한다. 하지만 통화하는 상대방도 존대해야 하므로 '과장님께서는'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 오답 해설 :
① '많이 참석해'의 주어가 '귀하'가 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
③ '상품'을 높이는 것은 고객 응대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다.
④ '나라'와 '겨레'는 겸양 표현으로 낮춰 표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로 고치도록 한다.

문 1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다. 돌이 단단하고 물이 부드럽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감각이 체계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각이 주관적이어서 사람과 시기에 따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감각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존 로크와 같은 경험론자들은 감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② 마음을 다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천명을 알게 될 것이다.
③ 종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④ 세계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유 의식의 진보이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독해 - 주제
이 유형은 지문의 관점을 파악하여 같은 관점의 선지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문의 주제를 잘 드러낸 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선지가 일반화 진술이 아니라 구체화 진술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인 경우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지문을 잘 요약해서 주제를 가답안으로 만든 뒤, 가답안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지문의 지엽적인 부분에 빠져 오답을 고를 수 있어요.
☆ 정답 해설:
지문의 주제는 '감각은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감각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감각의 중요성'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종 치는 것을 보는 것(시각적 경험)'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지식)'는 것을 알게 한다는 ③입니다.

문 17.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반이라는 말은 선비 족속의 존칭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어질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그 집에 몸서 나아가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가에서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그 빚이 쌓여서 천 석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의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는 매우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내었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기를,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양반하더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고 하였다.

- 박지원, 「양반전」 중에서

① 양반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② 군수는 양반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다.
③ 관찰사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④ 아내는 남편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독해(문학) - 내용확인
박지원의 '양반전'은 교과서 작품이자 저도 수업에서 강조한 작품입니다. 익숙한 작품이라고 기억에 의지해서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 정답 해설: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내가 남편(양반)을 몰아세우는 부분이 나온다. '외경'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②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③ 관찰사가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는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삐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보소. 두 손을 합장하고 일어나서 하느님 전에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도 섧지 아니하되, 병든 아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明天)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
눈물지며 하는 말이,
"여러 선인네 평안히 가옵시고, 억십만금 이문 남겨 이 물가를 지나거든 나의 혼백 불러내어 물밥이나 주시오."하며 안색을 변치 않고 뱃전에 나서 보니 티 없이 푸른 물은 워러렁 콸렁 뒤둥구리 굽이쳐서 물거품 북적찌데한데, 심청이 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뱃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엎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 「심청가」 중에서 -

①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②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상황을 보여준다.
③ 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면모와 효심이 드러나 있다.
④ 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독해(문학) - 서술방식
'심청가'의 이 부분은 제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부분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 부분에서 '서술자의 논평(주관적 서술)'에 대해 수업했었지요.
문학 지문에서 서술방식, 표현방식을 묻는 문제는 운문, 산문을 가리지 않고 출제 빈도가 늘고 있네요. 배경지식보다는 제시한 지문의 특징을 묻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정 발문의 경우 선지를 먼저 읽으신 뒤에 지문을 읽으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적 서술', '등장인물들의 발화', '대상 나열' 이런 요소는 줄거리를 파악하다보면 확인하지 못해서, 답안을 결정할 때 지문을 두 번 읽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정답 해설:
서술 대상은 '심청' 하나이다. 장면(시간과 공간)도 다양하지 않고 한 장면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마지막 부분에 '심청이 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뱃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엎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감정(동정)이 나타나 있다.
② 지문의 시작에서 물에 들기를 재촉하는 선인의 대사가 제시되었고, 심청이의 기도를 통해 상황을 알 수 있다.
③ 심청이의 기도를 통해 그녀의 효심을 알 수 있다.

문 19. 다음 글의 내용과 시적 상황이 가장 유사한 것은?

이 때는 추구월망간(秋九月望間)이라. 월색이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고, 공중에 외기러기 응응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사이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를 저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에 밝은 달 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송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해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 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임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임을 어찌 보지 못하는고. 심양강의 탄금녀는 만고문장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설진심중무한사(說盡心中無限事)를 세세히 하였건마는,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 하지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흠씬 갈고 청황모 무심필을 듬뿍 풀어 백능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장우단탄(長吁短嘆)에 맥맥이 앉았다가, 고개를 돌려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오나,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 「채봉감별곡」 중에서 –

- 설진심중무한사(說盡心中無限事): 마음속에 있는 한없는 얘기를 다함.
-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말하지 못함.
- 장우단탄(長吁短嘆): 탄식함을 마지않음.

①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갔네 /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이제 임이여 어이할꼬.
② 가위로 싹둑싹둑 옷 마르노라 / 추운 밤 열 손가락 모두 굳었네 / 남 위해 시집갈 옷 항상 짓건만 / 해마다 이내 몸은 홀로 잔다네.
③ 펄펄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울사 이내 몸은 /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④ 비 개인 긴 언덕에 풀빛이 짙은데 / 님 보내는 남포에는 서러운 노래 퍼지네 /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하니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독해(문학) – 고전 산문 + 고전 시가

인물의 정서를 파악하여 비슷한 작품을 고르는 유형은 한 문제로 여러 작품의 주제 파악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서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이때 선지로는 주로 시조 등의 고전 운문이 많이 쓰이니(현대시보다 부분만으로 주제 파악이 용이하다는 이유) 교과서 수록 시조들은 반드시 학습해 두세요. 이 문제도 시조의 정서뿐만 아니라 지어진 상황에 대한 지식까지 필요했습니다.

★ 나래국어 동형 모의고사에서 유형, 선지 ①③④ 적중!

☆ 정답 해설:

지문에서 가을날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가 '추풍감별곡'이다. 따라서 이별의 내용을 담은 시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③은 유리왕의 '황조가'로 이별의 정서를 담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공무도하가' 역시 '이별'의 내용이지만 '사별'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② 허난설헌이 지은 한시 '빈녀음'으로 시집을 가지 못한 여자의 슬픔을 담고 있다.
④ 정지상의 '송인'도 이별의 시이나, 친구와의 이별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문 20.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21세기 인류의 운명은 과학 기술 체계에 부여된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기술 공학에 의해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박하고 성급한 희망과,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서 역사의 주체로 등극하리라는 허무주의적인 전망이 서로 엇갈리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러나 모든 생산 체제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기업 문화의 전환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자기 보존, 생산의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엇보다 기업 내부의 문화적 전환을 떠나서 환경이나 자원, 에너지 등의 범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은 기술 공학의 마술적 힘에 매달리고, 그러한 위기들을 중앙 집중적 권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기술사회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다) 기술적 질서는 자연은 물론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도 심층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관리 사회로의 이행이나 노동 과정의 자동화 등은 사회 공학적 기술이 정치 부문과 생산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물론 기술 사회가 반드시 획일화된 관리 사회나 중앙 집권적 기업문화로만 대표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산업이나 초전도체 산업 등 고도 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는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지니는 유연한 체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라) 생활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고 경제적 행위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기술은 더 이상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 주는 생산 수단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기술의 체계는 이제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서 구성된 유기적인 앙상블로 기능하는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의 질서와 역동성을 지니는 체계이며 유사 주체로서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가) – (다) – (나) – (라) ④ (가) – (라) – (다) – (나)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문학 독해(배열)

배열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이 유형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훈련하면 이 유형 같은 점수밭이 없습니다.

각 부분의 주제를 요약하고, 접속부사와 지시어(이, 그저)를 체크합니다. 반복되는 중요 개념어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뒤 반드시 붙는 조각들과 앞뒤의 종속적 관계가 확실한 순서를 확인하고 선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객관식이니까요.

☆ 정답 해설:

*** 각 부분 요약 ***

(가):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의미가 없다.
(나): <그러나> 기업 문화의 당위성 <또> 범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기술에 매달리는 사람들
(다): 기술적 질서가 인간들의 삶에 미친 영향(관리 사회, 중앙 집권적 기업문화 / 상반적 전망)
(라): 기술은 생산 수단을 넘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주체이다.

문제 제기(화제 제시)(가) > 문제 제기 심화(다) > <그러나> (다)에 대한 불가피론 > 결론(라)

2016년, 나래국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7월 대비 총정리 Week 특강(1일 무료특강) :
2015년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적중률 총정리

2015.7.3(금) 14:00~18:00 KG패스원

- 2015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일행
  + 국회직, 경찰 등의 기타 직렬까지 적중 분석
- 2015 기출을 통해서 본 "2016 공무원 국어의 변화 예고"
- '나래국어' 튜토리얼 공개! - 마인드맵, 독해 알고리즘, 333암기법, 퍼즐연상 암기법

특전! - 나래카페 특별 회원으로 등업!
(특별 회원은 2016년 제작되는 나래 암기 워크북 시리즈 모두 무료)

7월 개강! 나래이론+300제 (N수 추천)

2015.7.10(금) 18:40~22:20 주1회 4T * 8주

- N수에게 강추하는 이론과 문제풀이 병합 단과
- 이론에서는 빈틈이 어딘지 꼼꼼하게 다시 체크하며 약점 보완
- 다양한 난도의 단원별 문제로 구성된 300제 문풀

특전! - 국가직/서울시/지방직 대비 나래동형을 들은 재도전자들은 교수 장학생으로 무료 수강
(가장 중요할 때 저를 선택하신 분의 재도전, 돕겠습니다)